

종이신문 예찬



신상용의

벤치나락

오늘도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거래처와의 중요한 미팅에 변수 없이 정시 도착하는 교통 수단으로는 지하철이 최고다. 그래서 지하철을 애용한다.

자가용 차량을 직접 몰고 다니는 것보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 어딜 가더라도 주차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저녁 모임이 갑자기 잡혀도 부담이 없다. 지하철에서 만나는 사람 구경의 재미는 덤이다. 필자처럼 하루에도 여러 거래처를 방문하는 사업가에게는 한마디로 ‘가성비 갑인 모빌리티’다.

이처럼 무수히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지하철이 가장 쓸쓸한 이유는 따로 있다. 시간이 곧 돈인 현대인들에게 이동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승용차를 운전할 때와 달리 두 손과 눈이 자유로워 책이나 신문을 읽으며 필자가 업으로 삼는 렌털전환(RX)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식을 쌓을 수 있다.

하루하루가 쌓여 일년을 채우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사업할 때 아이디어 원천이 되어 요긴하게 쓰인다.

필자는 지하철로 이동하는 30~40분 동안 신문을 읽는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종이신문으로 ‘뉴스를 읽는’다. 요즘에는 생소한 풍경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종이신문을 구독한다. 매일 새벽마다 집 앞으로 배달이 온다. 출근할 때 종이신문을 꼭 챙긴다. 이동 시간 틈틈이 읽기 위함이다.

물론,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뉴스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 여러 문제가 생기는 요즘 시대에 종이신문으로 보도되는 기사는 정제된 고급 정보다. 고등교육을 받은 고도로 훈련된 기자들이 쓴 기사를 언론사 내부에서 한 번 더 검증을 거쳐 가치가 높아진 기사들만 종이신문에 실린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1급수 정보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종이신문을 구독하고 읽는 이유다.

요즘에는 종이신문을 볼 때마다 ‘어쩌면 최고의 현대 사회 종합인문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종이신문 한 부에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등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이 생생한 사진과 함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주기 때문이다. 그것도 매일 매일.

놀라운 사실은 이 최고의 종합인문서 한 부가 단 돈 1000원선이라는 점이다. 소위 말해 편의점에서 파는 껌 값보다 싸다. 더욱 놀라운 점도 있다.

매일 배달오는 종이신문에서 지식을 다 습득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다 읽은 종이신문을 신발장이나 옷장에 넣으면 냄새와 습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튀김 요리를 할 때도 주변에 갈아두면 안전하고 깔끔하다. 유리창을 청소할 때도 유용하다.

신문(新聞)은 한자로 ‘새로운 것을 깨우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필자는 여기에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新門)’이라는 의미도 더하고 싶다. 지금 종이신문을 한 부 구입해서 펼쳐보자. 나를 성장시키는 배움의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아 차차! 오늘 아침에 깜빡하고 종이신문을 못 챙기고 나왔다. 다행히 지하철 역 앞에 반가운 무가지 신문이 있다. 무료라서 더욱 반갑다. 오늘의 문은 이걸로 열어야겠다.

//주)프리핀스 대표

진짜 맛은 얼마인가?



기지수첩

신원선
(유통&라이프부)

한국 식품산업이 ‘가성비’의 그물에 걸려 휘청이고 있다. 좋은 원료를 쓰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을 낮추면 품질이 떨어지는 구조 속에서 산업은 생기를 잃고 있다.

소비자는 가격표부터 보고 유통업체는 공급가를 짚는다. 결국 중소 제조사는 수입산 원료에 최소한의 가공만 거친 제품으로 ‘최저가 경쟁’에 내몰린다. 대기업조차 프리미엄 제품을 한정판처럼 눈치 보며 내놓을 뿐이다. 싸고 무난한 제품은 넘쳐나지만, 비싸도 좋은 식품은 설 자리를

잃는다.

일부 식품 회사들은 가성비라는 명목을 앞세워 국산 원료보다 수입산을, 깊은 품미보다 익숙한 자극적인 맛을 택하면서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유통을 단순화해 간편식을 내놓는다. 마트 진열대가 순식간에 비는 것은 비일비재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부담은 적었지만, 산업 전반이 ‘싼맛’에만 몰두할 때 잃어가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종합식품기업 하림은 간편식의 고급화 전략을 택했다. 항생제 없이 키운 동물복지 닭, 국산 곡물 사료,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 등 품질을 앞세운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타사 제품 대비 가격은 비싸지만, 신뢰를 파는 방식이다. 이런 시도는 느리지만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중요한 걸음이다.

미국·유럽·일본의 식품산업은 ‘저렴함’보다 ‘신뢰할 수 있는 품질’과 ‘지속 가능한 생산’을 경쟁력으로 삼는다. 한국도 ‘저렴한 맛’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품질’과 ‘글로벌 시장 속 국내 식품 산업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수입산 원료 의존을 줄이고 국산 유통망과 R&D에 투자해야 한다. 유통업계는 적정 마진을 보장해 상생 구조를 만들고, 소비자도 가격보다 가치를 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야 한다.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다. 식품은 하루 세 번, 생존이 아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다. 한국 식품산업이 진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얼마냐’보다 ‘어떻게만 들었냐’, 즉 가치를 먼저 따져물어야 할 것이다.

/tree6834@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 6월 9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작은 것은 내어주고 큰 것을 노려라. 48년생 분실수가 있으니 사람 많은 곳은 피해라. 60년생 뜯터있던 거품은 사라지고 부담만 남는다. 72년생 내가 책임질 일이 생긴다. 84년생 당장은 성과가 없어도 시작하면 좋다.

 소

37년생 결과를 재촉하지 말고 과정을 살피는 것이 중요. 49년생 알아도 모르는 척 지나가기. 61년생 멀리서 구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찾아라. 73년생 보람 있는 일을 하니 행운이 가까이. 85년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하루.

 호랑이

38년생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조용히. 50년생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간다. 62년생 상대를 배려하면 내가 존중 받는다. 74년생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을 인식. 86년생 시간이 돈이니 시간활용을 잘 하라.

 토끼

39년생 천하를 다 얻은 듯 즐거운 하루. 51년생 심한 운동으로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다. 63년생 표정관리를 잘해야 적을 만들지 않는다. 75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오니 일을 시작하라. 87년생 기대만큼 큰 성과가 있다.

 양

40년생 가족의 화목이 우선이니 배우자에게 더 신경 쓰라. 52년생 십 년 묵은 체증이 해소. 64년생 발기보다 배푸는 하루가 된다. 76년생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게 마련인데. 88년생 노력이 발휘되고 목표가 달성되는 날.

 뱀

41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53년생 오늘 할 일은 오늘 끝내라. 65년생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고 내일을 위해 저축을. 77년생 신에게 무조건 달라고 비는 것이 기도 아니다. 89년생 주변의 박씨가 도움을 준다.

 말

42년생 비가와도 밖에 나가지 않으면 우산은 필요 없다. 54년생 마음만 바쁘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66년생 선배에게 도움을 구하면 해결책이 보임. 78년생 주변이 바쁘니 외출 자제. 90년생 재혼자에게 먼저 칭찬하고 이해하라.

 양

43년생 오후 7시 지나면서 차 사고에 주의해야. 55년생 인수 운이 있으니 매매가 순조롭다. 67년생 원하던 영업문서가 실적으로 계약된다. 79년생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질 수. 91년생 상대가 못마땅해도 오늘은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원숭이

44년생 새로운 만남은 많은 것을 가져온다. 56년생 하늘도 맑고 푸르니 여행을 떠나 보라. 68년생 아차피 할 일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80년생 논쟁보다는 타협이 해결책이니 언쟁하지 마라. 92년생 지나친 자존감으로 좋은 기회를 놓친다.

 닭

45년생 자신의 능력으로 못사람들 위에 군림하게 된다. 57년생 부적절한 이성 관계로 망신 수가 있다. 69년생 사람을 가리지 말고 만나는 것이 좋다. 81년생 음주나 유행을 금하고 건강관리에 신경. 93년생 결모양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마라.

 돼지

46년생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겨라. 58년생 신규 투자할 곳이 나타난다. 70년생 남에게 이해를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82년생 산다는 것이 축복일까 건강하다면 최고의 축복으로. 94년생 진취적인 행동이 자녀들의 본보기가 된다.

 돼지

47년생 남의 이목에 지나치게 신경이 쓰인다. 59년생 일을 하던 중에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바로 중지. 71년생 벗어나니 새로운 관심거리가 생긴다. 83년생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살피라. 95년생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니 이직은 손실.

김상회의四季 을사년 백중 입제

우리나라 대승불교 스님들의 안거 입제는 음력 4월보름으로 고정이며 해제일은 음력 7월 보름인 백중일에 맞추므로 입제일 기준 보통 90일 남짓이다. 이러면 올해 하안거 해제일과 실제 음력 7월보름과는 거의 한 달 차이가 난다. 올해는 음력 6월에 윤달이 들므로 각 사찰마다 백중일은 안거 해제일에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통사찰이나 암자에서는 윤달 6월이 시작되는 음력 6월 초하루에 입제를 시작으로 백중재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원래 백중은 음력 7월 보름에 맞춰 백중재를 회향해야 하니 필자가 주석하는 월광사도 그렇게 일정을 잡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 윤6월 1일에 입제를 하여 초재를 윤6월 2일부터 하게 되면 음력 7월 15일이 되는 양력 9월 6일에 회향을 하게 된다. 윤년이나 윤달은 조상묘의 이장과 같은 음택풍수를 행하는 것은 무탈하거나 길하다 하여 분주한 시기이기도 한데, 백중 7재를 윤6월에 입제하여 진행하게 되니 조상 천도에는 이만한 시절 인연을 만나기 쉽지 않다. 점점 제사도 챙기지 않는 마당에 백중재까지 지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으나 불교는 윤회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게다가 육체는 사대로 흩어져 사라지지만 식의 기능은 업력으로 윤회한다. 이것이 혼(魂)이며 영(靈)으로 영혼이라 부르는 그것은 업력에 의해 인연 환생을 한다. 업식의 연결 인연으로 후손들은 기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니 조상 묘자리를 중시여기는 연유이다. 선망 친족 연족은 물론 연관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영가가 지옥고를 비롯한 4악처를 면하고 산 사람은 물질인 몸을 갖고 있어 마음이 둔탁하지만, 영가는 몸이 없어 부처님의 주옥과 같은 가르침 한 마디에 영이 깨어난다. 재를 올리는 이유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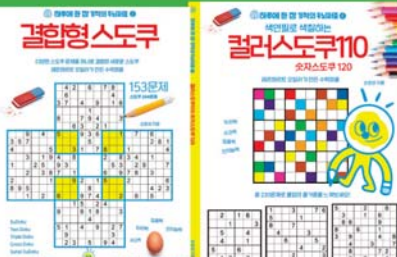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5	3			1	
			8			3	2	7
		9	4	3		1	8	
		5				9		
	1	4		5	9	7		
9	3	7			8			
6			9	4				8

		1		6			8	3
6			9					
		1			2		7	
8	9		2				6	
		7				3		
	6				3		5	9
	2		6		1			
					4			7
3	1			8		5		

8	8	2	7	2	6	1	9	9
7	1	9	8	2	9	2	8	6
6	2	9	9	1	8	8	7	2
8	9	2	6	9	2	7	1	8
2	7	6	2	8	1	9	9	8
9	8	1	9	8	7	6	2	2
9	7	2	6	2	8	8	1	2
2	2	8	1	7	8	9	6	9
1	6	8	8	9	9	2	2	7

9	2	9	6	8	2	7	1	8
2	6	1	7	2	8	9	8	9
8	8	7	1	9	9	6	2	2
6	9	8	8	2	7	2	9	1
2	1	9	8	6	8	2	9	7
7	9	2	9	1	2	8	6	8
9	2	9	7	2	1	8	8	6
1	7	2	8	8	6	9	2	9
8	8	6	2	9	9	1	7	2